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양의 베이커리 기업

디엔비(D&B)



- 가족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 2017년 여성경제인으로
경제발전에 기여가
큰 혁신성장을 이끈
기업으로 (주)디엔비
신영이 대표 산업포장 수상
- 다양한 도넛, 피자빵,
수제조립빵으로 6개 특허와
8개 고유상표를 보유한
제빵회사

올바른 먹거리 실천으로 고객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 성장한 알차고 정직한 제빵회사 디엔비(D&B)를 소개한다.

글 강인옥(고양시 소설기자단) 사진 디엔비

연매출 140억 성장의 동력은 열정!

1998년 덕양구 토당동에서 2명의 직원과 작은 빵집으로 창업한 이래 20년이 지난 지금은 95명의 직원과 140억의 연매출을 올리는 제과제빵계의 거목으로 우뚝 성장했다. 디엔비만의 맞춤 프리믹스로 빵을 만들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향과 당도를 줄인 도넛과 피자류 및 수제조립빵이 청소년과 군인 등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립 당시 매일매일 다채로운 급식 지원으로 신뢰성과 참신함을 인정받아 창업 1년 즈음 LG마트행신점(현 롯데마트행신점) 입점을 계기로 GS,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에까지 대형 유통점에서 입점 콜이 이어졌고 대기업 및 학교급식과 국군복지공단, 편의점 등의 납품으로 급성장하게 됐다.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2011년 지금의 원당동으로 회사를 신축 이전, 자동화된 제조설비시설을 갖추며 HACCP 인증 이후 매출은 급상승하고 있다.



1 디엔비 제빵 공장
2 디엔비 빵
3 디엔비 제빵 공장
4 디엔비 임직원



앞으로 제빵업계의 전망은?

서구화돼가고 있는 식생활의 변화로 빵 소비시장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신영이 대표는 유연하고 섬세한 여성으로서 식품 제조가 잘 맞는 듯하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당도와 향을 낮춘 제품은 6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늘어가는 수요에 맞춰 디엔비는 위생적인 제조설비 시설투자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의 다양한 입맛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한 제빵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도전을 펼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으뜸 여성기업으로 선정

신영이 대표는 국내외 시장 개척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해 2017년 경제발전에 기여가 큰 여성 기업인으로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의 매출성장과 생존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정작 직원들을 돌보지는 못했다는 자각이 들었다. 15년

이상의 장기근속 직원이 50% 정도로 지금까지의 성장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아름다운 나눔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는 고민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쉬어가며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베이커리형 카페를 마련했다.

앞으로 기업경영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개발제한 구역의 공장부지는 더 이상의 증축이 어려워 한정된 시설에서 초과 근무로 주문량을 대체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설투자를 확대해 대처해 나가고자 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창업부터 함께한 직원들이 정년을 맞이할 나이다. 그분들을 위해 2014년, (주)모모라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했고, 은퇴한 실버 세대가 일하고 또 그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스토리를 담은 공간인 '모모드팜'을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 재료와 자연 발효를 시킨 건강한 빵, 특정 질환에 좋은 기능성 빵과 건강 음료가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프랜차이즈화 할 계획이다.